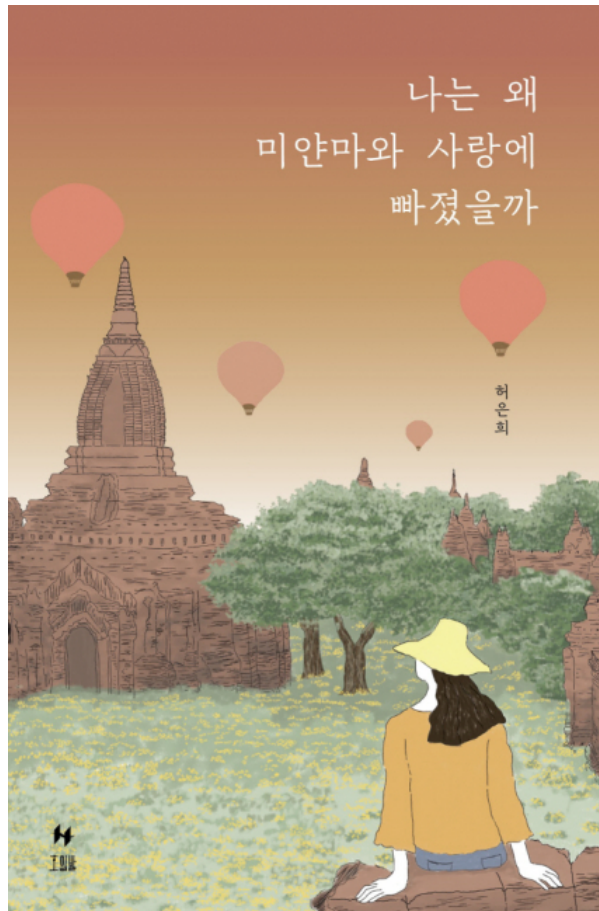


청춘의 시작점, 낯선 나라 미얀마에 빠진 이유

✎ 권재혁 | ⓒ 승인 2021.01.22 | □ 21면

홍천 출신 허은희 작가 에세이



▲ 허은희, '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'

‘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’는 홍천 출신의 20대 작가가 1년6개월동안 동남아 국가 ‘미얀마’에 머물면서 이 나라에 물드는 경험을 쓴 책이다.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작가가 학교밖 첫 사회생활 공간으로 낯선 나라인 미얀마를 만나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.

이 책을 쓴 허은희 작가는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국제개발전문봉사단과 NGO봉사단원으로 잇달아 미얀마를 찾아 연구활동과 지원사업에 참여했다. 책 속 문장에는 미얀마를 떠난 후에도 그 곳의 추억들을 잊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. 한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라는 사명감과 미얀마의 첫번째 이야기꾼이 되고 싶은 심정도 드러났다. 그의 꿈은 미얀마 식당을 여는 것이다. 미얀마 가요 부르기는 특기다. 허 작가는 “홍천에 있으면서 SNS에 미얀마 노래 영상을 올려 7만명 이상이 구독했다”며 “미얀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 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곳이다. 가장 좋아하는 ‘모헝가’(미얀마 국수)를 소개하는 식당을 언젠가 열고 싶다”고 했다. 이 책은 협성문화재단의 뉴북 프로젝트에 응모한 120여편중 최종 선정된 6편에 뽑히기도 했다. 28일부터 지식공유 커뮤니티인 더굿북에 5회 연재된다. 권재혁



권재혁 kwonjh@kado.net